올해 정시 승부처는 '불수학'…국어도 까다로워

2020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발표…문과수학 최대 변수

영어 적정 수준 출제 평가…탐구 난도 널뛰기는 여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수학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과생이 주로 치르는 수학 나형은 '불수능' 논란이 일었던 전년도 수능 국어 만큼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0학년도 대입 정시에서는 수학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어는 전년도보다 쉽게 출제됐지만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역대 가장 높은 표준점수를 기록했던 전년도 수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표준점수를 기록했다. 영어는 적정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별 성적표는 4일 통지된다.

올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국어는 전년도보다는 쉽게 출제됐지만 체감난도는 낮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전년도(150점)보다 10점 감소한 140점을 기록했다. 교육현장에서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 이상일 경우 다소 어렵다고 평가하며 표준점수는 어려울수록 올라간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국어가 전년도보다 쉬웠지만 표준점수 최고점(140점)은 2005학년도 현 수능 체제 이후 두 번째로 어렵게 출제됐다"며 "결코 쉬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어 1등급 커트라인은 131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132점)보다 1점 감소했다. 원점수(추정치)로 따지면 91점으로 전년도(84점)보다 올라갔다. 원점수는 어려울수록 내려간다. 다만 원점수는 성적표에 기재되지 않고 현재 대입에서도 활용하지 않는다.

만점자 비율은 0.16%(777명)로 집계됐다. 전년도 수능(0.03%·148명)보다 지난해 대비 쉬웠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만점자 비율 자체가 상당히 낮아 변별력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학이 가장 까다로웠다. 고난도로 출제된 만큼 이번 대입 정시에서 수학 성적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문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나형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149점으로 전년도 수능(139점)보다 10점이나 올랐다. 만점자 비율(0.21%·661명)도 전년도 수능(0.24%·810명)보다 내려갔다.

수학 나형 1등급 커트라인은 135점이다. 전년도 130점보다 5점 올랐다. 원점수 추정치는 84점으로 전년도 88점보다 4점 낮아졌다.

성기선 평가원장은 이에 대해 "초고난도 문항을 줄일 경우 등급 간 별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문항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인문계열 학생들은 중고난도 문항이 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다소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학 나형 1등급 내에서도 점수 차가 나타나는 상황인데, 2~3등급에서도 각각 3~7점, 8~10점으로 점수 차가 발생한다"며 "이를 감안하면 수학에 따라 정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과생이 주로 보는 수학 가형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134점으로 전년도(133점)보다 1점 올랐다.

수학 가형 1등급 커트라인은 128점으로 전년도(126점)보다 2점 올랐다. 원점수 추정치는 92점으로 전년도와 같지만 2등급 커트라인이 지난해 대비 내려갔다. 평균도 하락했다.

만점자 비율은 0.58%(893명)로 전년도 수능(0.39%·655명)보다 다소 늘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수학 가형의 경우 최상위권 수험생은 다소 쉽고 상위권 이하 학생들은 까다로웠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종합하면 수학 가형도 지난해보다 약간 어렵게 출제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절대평가로 치르는 영어는 적정 수준으로 출제됐다. 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 비율이 7.43%(3만5796명)으로 집계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등급 비율이 6~8%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전년도 수능은 1등급 비율이 5.30%로 상대평가 수준(1등급 비율 4% 내외)으로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영어와 함께 절대평가로 치르는 한국사는 수험생들이 전년도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느낀 것으로 분석됐다. 3등급까지 비율이 56.58%, 4등급까지는 72.73%로 나타났다. 전년도 수능에서는 각각 65.65%, 77.76%였다. 대부분 대학에서는 문과는 3등급, 이과는 4등급까지 감점을 하지 않는다.

탐구영역은 올해도 선택과목 간 난도 널뛰기가 발생했다. 표준점수 최고점 차가 많이 나면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 입시 유불리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탐구에서는 경제(72점)와 윤리와사상(62점)의 표준점수 최고점 차가 10점이나 났다. 특히 윤리와사상은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될 정도로 난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탐구에서도 선택과목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가 8점(지구과학Ⅰ 74점, 물리Ⅰ·지구과학Ⅱ 66점)이나 발생했다.

이번 수능에서는 사회탐구영 변별력이 전년도보다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성호 대표는 "사회탐구의 경우 전년도 9개 선택과목 중 6개의 1등급 커트라인이 만점이었는데 이번 수능에서는 윤리와사상,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등 3과목만 1등급 커트라인이 만점"이라며 "1등급 커트라인 만점 과목이 적은 만큼 전년도 대비 사회탐구 변별력이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영역별 만점자 비율

영역		2020학년도 수능	2019학년도 수능
국어		0.16%(777명)	0.03%(148명)
수학	가형	0.58%(893명)	0.39%(655명)
	나형	0.21%(661명)	0.24%(810명)
영어		7.43%(3만5796명)	5.30%(2만794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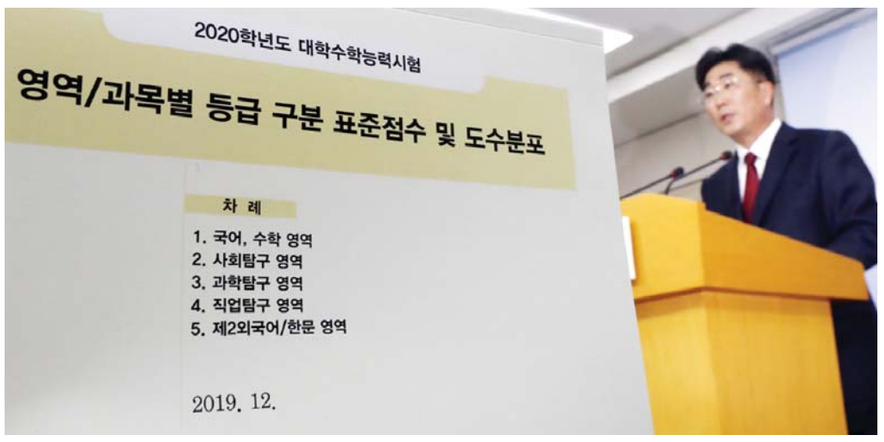
※절대평가로 치르는 영어는 1등급(90점 이상) 비율과 인원임

국어·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영역		2020학년도 수능	2019학년도 수능
국어		140	150
수학	가형	134	133
	나형	149	139

※표준점수 최고점은 시험이 어려우면 높고 쉬우면 낮음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기자실에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 수능 만점자 15명…재학생 13명·졸업생 2명

성기선 평가원장, 2020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만점자 공개

"예년과 달리 재학생 많아"…문과생 11명·이과생 4명 추정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자가 총 15명 나왔다. 올해는 졸업생보다 재학생 만점자가 훨씬 많은 점이 주목된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브리핑에서 "올 수능 만점자는 15명"이라고 밝혔다.수능 만점자는 2017년 성 원장 취임 이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성 원장은 "만점자 15명 중 재학생은 13명, 졸업생은 2명"이라며 "작년과 재작년에는 졸업생이 많았는데 올해는 재학생이 상당히 많다는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점자들의 계열의 경우 탐구영역 응시를 기준으로 보면 사회탐구를 치른 학생이 11명, 과학탐구는 4명"이라며 "사회탐구 치른 학생이 인문·사회계열, 과학탐구 응시생들이 자연계열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능 만점 여부는 주요·필수 응시영역(대학별 정시 반영과목)으로 판단한다. 대상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탐구·과학탐구), 한국사다.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모든 문제를 맞혀야 만점이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가 적용돼 1등급이면 만점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영어는 90점 이상, 한국사는 40점 이상(이하 원점수 기준)이면 만점이다.

뉴스1